



# 다솜 사랑

Volume 4, Number 3

2008년 3월 8일

다솜 사랑  
Vol. 4, No. 3 (제17호)  
펴낸이: 교장 최미영  
역은이: 교사 임강주

## 학교장 인사말씀

지난 2월 중순에는 한국에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삼한사온을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겨울 날씨라고 생각해 왔는데 삼한사온은 간 데 없고 거의 1주일간 오후에도 영하를 밑도는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귀국하여 북가주의 포근하고 따사로운 겨울 날씨를 한껏 즐기며 지난 2004년 3월초, 다솜이 개교한 때가 생각이 납니다. 교실이 준비되지 않아서 길 건너편 Residence Inn에서 개교를 한 일부러 오로지 2세 교육을 위해 열심이신 선생님들이 정성을 다해 가르쳐 오신 일, 차츰 학교가 성장하면서 지난 해에는 120명까지 학생을 맞이하게 된 일,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문 앞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일들이 모두 주마등 처럼 제 머릿 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이렇게 귀한 환경과 준비된 선생님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솜 한국학교는 4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사랑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교사진과 특활반, 아침조회, 웹사이트 등을 갖춘 튼튼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성찰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2세들을 위해서 우리 1세들이 더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2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더 나은 교육 방법은 어떤 것일까? 또 우리 1세

교사들이 벗어나야 하는 잘못된 사고의 틀이나 인식의 틀은 없는 것일까?"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지 "왜 한국학교를 하는가"라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목표는 무엇이며 그런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최종으로 다리고 싶은 목적을 다시 새기며 그것을 추구해 나간다면 그런 문제를 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솜 한국학교의 설립 취지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가지의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하여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며 동시에 미국 사회 및 세계에 공헌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학기 개강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영어와 한국어를 잘 배우자, 정직한 사람이 되자, 친절한 사람이 되자,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자"는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노력할 때 한국학교의 목적이 조금씩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개교 4주년을 맞이하여 학생들을 이러한 길로 인도해 가는 축진자의 역할을 하는 학교와 선생님들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다솜 달력

- 3월 8일 개교 기념식
- 3월 22일 부활절 휴강
- 3월 29일 SATI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3월 29일 북가주 교사 연수회
- 4월 19일 한국어 능력시험
- 5월 10일 북가주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 5월 24일 메모리얼 데이 휴강
- 6월 7일 종강식 및 특활반 발표회

## 다솜 칼럼

### From the Chick That is Growing

이영희 선생님 (고려반)



교육의 목표는 지식의 증진

과 진리의 씨뿌리기이다.

- J. F. Kennedy.

얼마 전, 지난 일년간 아이가 보내온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던 중, 유독 한 편지가 눈에 띄었다. 부활절에 쓴 그 편지의 말미에는 'from the chick that is growing' 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필자에게는 편지 내용보다 그 마지막 구절이 참 감동이었던 것이 새삼 기억이 났다. 이제는 많이 큰 것 같지만, 아직도 여전히 병아리 같은 어린 딸아이의 모습이 연상되어 딸아이에게 필자의 생각을 말해주며 꼭 안아주었다. 먹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어미 닭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병아리의 모습. 어미 닭으로서 병아리를 잘 이끌어야 되겠다는 필자의 책임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가슴 뭉클했었다.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지만, 그렇다고 부모역할이란 것이 정해진 지침서가 있어서 그것만 따르면 되는 그런 단순한 과제도 아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은 어디까지 조언일 뿐, 각자 자녀의 특성과 가족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 내에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따라 자녀 교육과 부모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조언들을 들으면서 적용해볼 수 있는 이론이나 방법들을 찾아보게 된다. 혹은 전문적인 조언이 아니더라도,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하면서 주위로부터의 많은 간접적인 경험들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게 된다. 필자는 하는 일의 성격상, 가끔 교사역할과 부모역할을 연관지어보기도 한다.

한편, 두어 쿼터 전에, 필자는 한 학생으로부터 아주 감동적인 부모역할을 배운 적이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단과대학에서는 일년에 한번씩, 일년 간 각 교수가 경험한 훌륭한 학생들을 추천하여 시상하는 행사가 있다. 그렇게 추천된 학생 중 한 명이 필자에게 큰 인상을 남겼는데, 그 이유는 그 나이든 학생의 배움의 동기가 아주 특별해서였다. 그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였으며, 그의 아들이 화학을 공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화학 과목을 신청하여 공부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여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그를 담당했던 한 화학교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행사장은 아주 큰 박수소리로 가득 찼었다. 아들의 숙제를 봐 줄 수 있었고, 적어도 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화학 질문들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때로 대답을 못해준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아들과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다고 말하는 그 엄마학생(?)으로부터, 필자는 부모역할이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하는 물음과 함께 그의 적극성과 열정에 감동했었다. 필자에게도 나이 많은 학생들이 가끔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이제까지의 커리어를 바꿔보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지, 배워서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부모가 직접 나서서 배우고 그것을 가르칠 필요까지야 없다. 그러나, 자녀가 정말 힘들게 생각하는 교과목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혹은 아이에게만 열심히 공부하라고 다그치기 전에, 사정이 허락한다면 노력하여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체가 그 자녀에게 큰 귀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새까만 두 눈을 반짝이며 어미 닭을 쫓아다니면서 그 어미 닭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병아리들이 있다. 필자는, 부모로서의 우리의 행동이 말보다 앞서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와, 쉽게 돈으로 tutor를 사는 대신 부모가 먼저 노력한 좋은 본보기를 그 나이든 엄마학생으로부터 배우게 되었다.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자녀를 위한 사랑과 열정을 실천하는 부모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 교단 일기

### 최상의 꽃을 피우기 위해-이학준 교수님의 특강을 듣고 나서.

김영식 선생님 (고구려반)

지난 일요일 이학준 교수님의 특강을 들었다. 금요일, 토요일 특강도 너무 듣고 싶었지만 아이들 감기 때문에 못 오고 하루라도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역시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났다. 이 목사님의 강의는 이년 전 교사 연수회에서 처음 들었는데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 만나는 사람마다 이교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들은 말씀 중 아이들은 다 아름다운 꽃을 피울 씨앗이라는 말씀은 잊혀지지 않는다. 어쩌면 너무 당연해 진부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이어지는 교수님의 설명에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되었다. 아이들이 꽃을 피우기는 하는데 부모는 아이가 그냥 꽃이 아닌 최상의 꽃을 피울 수 있게 세심히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가 어떤 싹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야 한다며 마이클 조던의 예를 드셨다. 그는 최고의 농구 스타이지만 이류 야구선수였다고. 야구에서도 조던은 꽃을 피웠지만 농구로 바꾼 그는 최상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하시며 최상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장소와 조건을 만난 아이는 가만히 내버려두어도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싹을 죽이는지 예를 드셨는데 싹을 안 보여 준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까 뒤집어 보는 부모, 나오는 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시하고 잘라버리는 부모, 자기가 바라는 싹에 맞는 영양분만 주는 부모, 알아서 피겠지 하고 물도 안주는 부모 - 다 내 이야기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다시 이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 반 아이들을 생각해 본다. 단지 일년 동안의 한글 수업을 맡은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 한 방울이라도 댄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우리 아이들이 그 물방울에 잠시라도 행복했으면 하고 바라본다.

내일의 모든 꽃은 오늘의  
씨앗에 근거한 것이다.

-중국 속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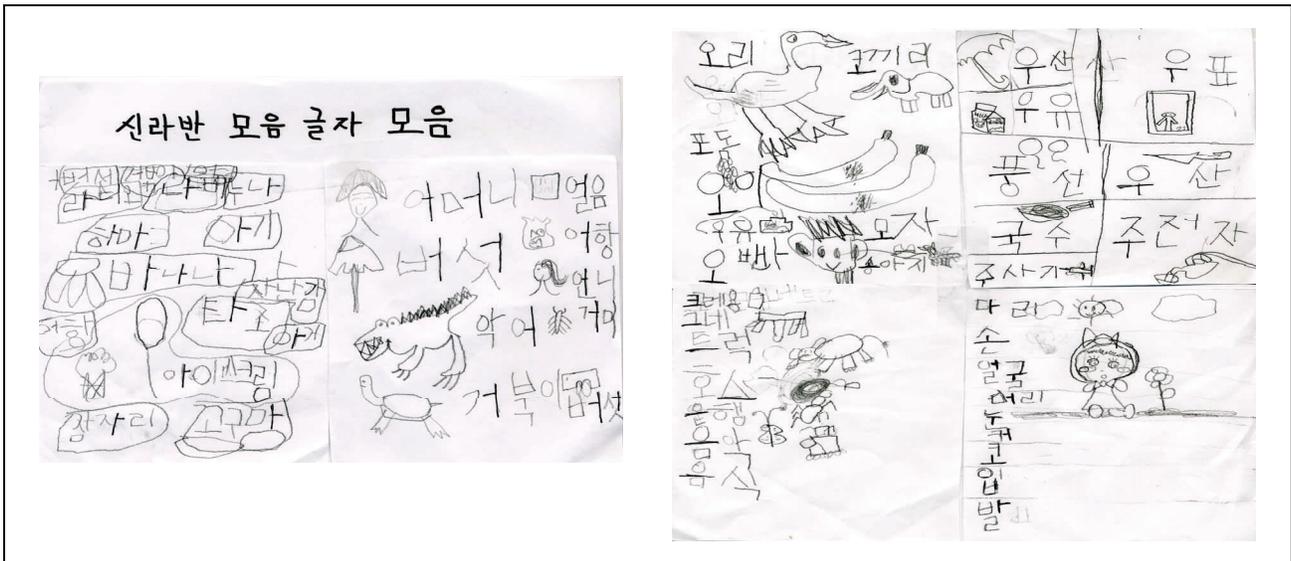


## 다솜 교실(신라반)

송향화 선생님 (신라반)

송아지나 망아지는 엄마 뱃속에서 다 만들어져서 나와 세상에 발을 내딛으면서부터 뛰어다니지만 사람은 태어난 이 후에 만들어진다죠? 주말에 좀 더 쉬고 싶은 마음 뒤로 하고 아이들 손잡고 교실 문을 들어설 때 얼마나 반가운지...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노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잘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부모님들을 매 주 토요일마다 뵈면서 “이 아이들은 앞으로 반듯하고 건강하며 훌륭하게 잘 만들어질거야” 라는 믿음으로 토요일 아침마다 아이들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수업시간에 이런 걸 배웠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볼라가 식탁을...- 박상준

늑대와 일곱 마리 양 - 장준원

공룡 - 이재원

발렌틴이 아파요...- 윤혁



## 우리들의 이야기

###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강인모 (대한민국반)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누구를 도울 때에는 어떤 것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돕는다는 것은 이기심이 없어야 합니다. 돕는 사람에게는 거의 이익이 없이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돕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이기심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에는 우리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그러한 이기심의 상태에서 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장애물을 극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가장 직접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형진 (대한민국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한 가을 날입니다. 바람이 시원하지만 약하게 살짝 부는데, 빨간 나무 이파리가 찰랑찰랑 아름답게 춤추면서 내려옵니다. 뒤에 해가 지면서 노을이 환하게 하늘을 진한 주황이랑 노랑으로 칠했습니다. 근처에 바다소리가 들리고 발밑에 파릇한 잔디 냄새가 나는 풍경 말입니다. 새들이 깨끗한 노래를 연주해주고 짙은 향이 입을 기쁨으로 가득 채웁니다. 근처에 돌고래가 펄쩍 뛰고 풍덩하면서 바다에 다시 돌아옵니다. 참 아름답지 않아요?

김하영 (대한민국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 많은 모습들이 떠오른다. 하지만 그 중에서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모습 하나가 있다. 아름다운 모습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인데,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사랑의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오래 전에 교회 주보에 실려있던 한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있던 중,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일곱 살 난 아들과 다섯 살 짜리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아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응급 수술을 받던 중 피가 필요했는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딸 뿐이었습니다.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무얼 생각하는 것 같더니 머리를 끄떡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있었습니다.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나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죽다니. 네가 왜 죽는단 말이나?”

“그렇다면 피를 뽑아도 죽는 게 아닌가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애야, 넌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던 말이나?” “네,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 동생은 피를 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도 자기 오빠를 위해서 피를 줬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그 아이의 행동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안에 사랑에 담긴 희생이 너무나 잘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김형석 (대한민국반)

내 관점에서 보면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존재하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이것 없이는 우리가 현재 즐기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이것이 있을 때 가능하다. 생명 없이 어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랴. 그래서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아름다움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김대경 (대한민국반)

나는 엄마가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예요. 내가 엄마를 항상 사랑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데,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엄마가 음식을 만들 때예요. 엄마가 앞치마도 안 입고, 허름한 남자 옷을 입고 프라이팬을 잡으면 바로 엄마를 정말 사랑하게 되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파도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마음을 그 음식에 다 놓아요. 그래서 가족이랑 다 앉아서 먹으면 엄마를 생각하고 감사를 뽀뽀로 보여줘요.



## 우리들의 이야기

### 사랑하는 내 딸에게...

홍희연 (고려반)

지금은 내가 11살이란다. Brookvale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25년 뒤면 네 나이가 지금 나와 동갑이란다. 너는 지금 나처럼 초등학교 5학년이겠지. 나는 지금 피아노와 아이스 스케이팅을 배운다. 너는 아마도 첼로를 배우고 있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피아노를 치지만, 아는 우리 언니 친구가 첼로를 하는데 내가 딸을 낳으면 첼로를 배우게 할 테니까. 그렇지만 너는 지금 나처럼 연습이 힘들어서 고생할 수도 있다. 나도 연습은 아주 힘들지만, 어떤 날은 음악이 나를 즐겁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보면 잘 하게 되는 거다.

안녕, 사랑한다.

희연이 엄마가

### 사랑이란...

박지연 (고려반)

사랑은 아름답고 따뜻한 것이다. 나에게도 사랑에 대한 소중한 기억이 있다. 어렸을 때 일이다. 내가 너무 많이 아파 누워 있었다. 마치 어두운 토굴 속에서 캄캄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밖으로 나오기 위해 온 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게 몸이 아팠다. 그때, 내 앞에 우리 엄마는 환한 햇불처럼 보였다. 이마에 손을 놓고, 금방 온 정성을 쏟으셨다. 죽도 끓여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셨다. 코가 막혀 답답하고 몸이 아파 짜증을 냈는데도 엄마는 화도 내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셨다. 엄마의 지극한 사랑으로 토굴 속에서 무사히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지금도 나는 '엄마의 사랑' 하면 그때가 떠오른다.

강지나 (대한민국반)

'사랑'을 들으면 나는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내 가족도 있고, 엄마하고 오빠랑 많이 싸우지만, 사랑을 맨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를 웃게 만들고 힘들 때 도와줍니다. 나의 엄마의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엄마는 나를 맨날 도와주고...

정샤론 (대한민국반)

우리의 나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의 사랑입니다.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도 많고 똑똑해요. 그렇지만 그 친구 가족은 항상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 친구는 매일 슬퍼요. 그럴 때 나의 가족을 생각해요. 엄마와 아빠와 언니와 같이 밥먹고 놀면서 사랑받는게 그렇게 중요한지 여태까지 몰랐어요.

### 다솜학교가 좋아요

임재인 (백제반)

한국학교가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친구랑 쉬는 시간에 놀아요. 친구랑 강아지 놀이를 해요. 시형보는 게 힘들어요. 외울 것이 많아요. 한글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요.

원수빈 (백제반)

우리 다솜 한국학교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며 많이 배워요. 한국학교가 재미있어요. 그리고 매주 주시는 숙제도 꼬박꼬박 해가요. 학생들이 많이 한국책을 읽어요. 다솜 한국학교가 참 좋아요.

### 우리 백제반은요...

김민희 (백제반)

백제 반은 많이 재미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수빈이예요. 다른 친구들도 많이 좋아해요. 좋아하는 노래는 무궁화랑, 태극기랑, 애국가이예요. 여학생들은 한국무용을 해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미술을 해요. 우리 선생님은 원은경 선생님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재밌게 가르칩니다. 나는 한국학교를 많이, 많이, 많이 좋아해요. 나는 다솜 한국학교에서 백제 반이 제일 좋아요.

김상준 (백제반)

우리 반은 백제 반입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는 교실을 바꾸었어요. 나는 새 교실이 좋아요. 선생님이 아팠어요. 지금은 다 나왔어요.

서사무엘 (백제반)

우리 백제 반 선생님은 원은경 선생님입니다. 우리 백제 반에 있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지요. 또 특활시간도 있어요. 남자 친구들은 미술을 배우고 여자 친구들은 한국무용을 배웁니다. 우리 다솜 한국학교는 교회 안에서 공부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모키세스 (백제반)

나는 토요일이 늘 기다려진다. 그 이유는 다솜 한국학교 백제 반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싶기 때문이다.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는 세스가 될 것이다.

## 2월에 다솜에서는 ...

### 설날 행사 (2008년 2월 9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두를 직접 만들었어요



제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 작문 특강 (2008년 2월 23일)



고려반 수업



조선반, 대한민국반 수업

## 교사 동정

지난 2월 봄학기를 맞이하면서 학교의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원은경 선생님이 교무 선생  
님으로 일하시게 되었고 재무는 백지현 선생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입학  
및 등록 등과 관련된 학사 업무는 원은경 교무 선생님께 의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생일 축하합니다.

3월 생일 학생 : 김민하, 남석, 임재순, 조민기

4월 생일 학생 : 강지나, 김민희, 김상준, 김정연, 장예원, 정현준, 최윤아, 진주, 모크세스

## 점심 봉사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정기 교사 회의를 위해서 점심 봉사를 해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2월: 남석 학생 부모님

4월: 조은성, 현성 학생 부모님

Volume 4, Number 3



다솜 한국학교



## 공지 사항

### 1. SATII 한국어 모의 고사 실시

시험일: 2008년3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응시 가능 학생: 7학년 이상의 다솜한국학교의 모든 재학생

### 2. 제 13회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안내 (<http://topik.or.kr>)

시험일: 2008년 4월 19일 (토) 13:30-17:30 pm

시험장소: 다솜 한국학교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2008년 2월 26일 - 3월 7일

학교별 접수: 다솜한국학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음

제출물: 응시원서, 응시 수수료 납부 증서, 응시료 (\$20)

(다솜 웹사이트 소식방에 응시 원서가 있습니다.)

시험 종류: 3종 (초급, 중급, 고급)/ 평가 등급: 6개 등급

(기출 시험지: 학교에서 보급 가능함)

다솜한국학교

Dasom Korean School  
1494 California Circle  
Milpitas, CA 95035

Phone: 408-934-3600

Fax: 408-934-1092

info@dasomks.org